

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 1 | 2 | 3 | 4 | 5 |
|----|----|----|----|----|
| ① | ④ | ③ | ③ | ② |
| 6 | 7 | 8 | 9 | 10 |
| ③ | ④ | ① | ② | ① |
| 11 | 12 | 13 | 14 | 15 |
| ⑤ | ③ | ③ | ④ | ④ |
| 16 | 17 | 18 | 19 | 20 |
| ③ | ② | ④ | ② | ③ |
| 21 | 22 | 23 | 24 | 25 |
| ① | ② | ① | ⑤ | ④ |
| 26 | 27 | 28 | 29 | 30 |
| ④ | ② | ⑤ | ④ | ③ |
| 31 | 32 | 33 | 34 | 35 |
| ① | ② | ⑤ | ⑤ | ③ |
| 36 | 37 | 38 | 39 | 40 |
| ⑤ | ⑤ | ① | ⑤ | ④ |
| 41 | 42 | 43 | 44 | 45 |
| ① | ④ | ④ | ② | ② |
| 46 | 47 | 48 | 49 | 50 |
| ④ | ⑤ | ③ | ③ | ⑤ |

<1번 오답 해설>

③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던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④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오수전(五銖錢): '오수(五銖)'의 두 글자가 표시된 중국의 화폐, 한 무제 때 처음 주조되어 위진 남북조, 수 대에 걸쳐 사용되었다(초기에는 동전이었던가 후대에는 철전도 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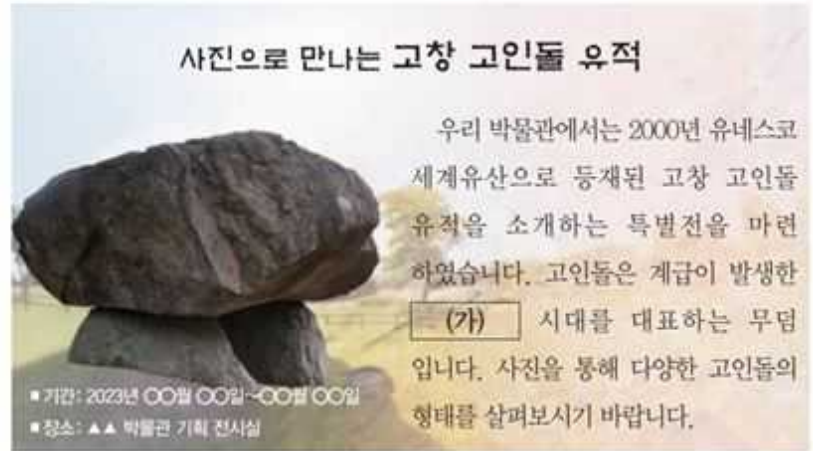
***화천(貨泉): 중국 왕망 대(기원후 8~23) 신나라 때부터 제조된 화폐(동전)

⑤ 옷을 만들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 ②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 ③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④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 ⑤ 옷을 만들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①

'사진으로 만나는 고창 고인돌 유적'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2000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입니다. 사진을 통해 다양한 고인들의 형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인 고인돌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시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도)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반달 돌칼로 벼를[벼 이삭을]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반달 돌칼은 생김새가 대체로 한쪽이 곧고 다른 한쪽이 둥근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식의 낱알을 거두어들이는 데[이삭을 따는 데] 쓰인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수확 도구]이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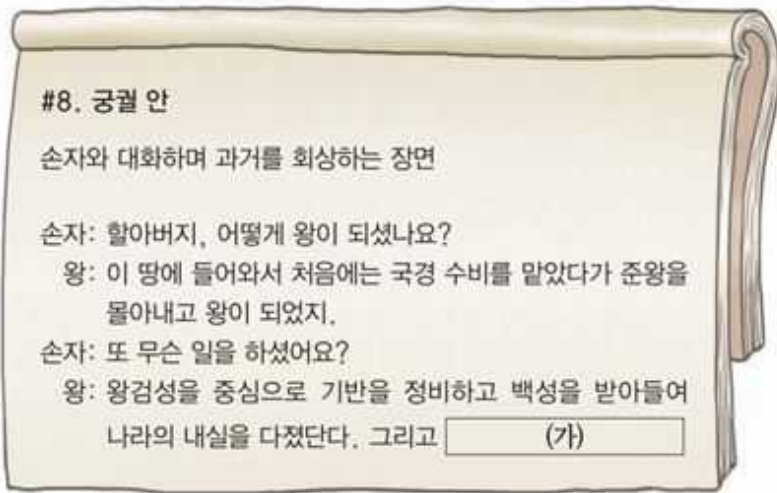
②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어 가능해진 것인데, 특히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경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우경(牛耕):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는 일. 우경이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이다(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으로 짐작,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삼국사기』). 아울러 이때 수리 사업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02 - 위만 조선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단다.
- ②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단다.
- ③ 내신 좌평 등 여섯 명의 좌평을 거느렸단다.
- ④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단다.
- ⑤ 지방의 여러 성에 옥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정답> ④

'#8. 궁궐 안'에서 '손자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손자가 '할아버지, 어떻게 왕이 되셨나요?'라는 물음에 왕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 수비를 맡았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라는 물음에 왕이 '왕검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정비하고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의 내실을 다졌단다. 그리고 (가)'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위만 조선'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기원전 194). 참고로 위만(衛滿)(?~?)을 앞서 전국 시대(기원전 3세기 초)에 연이 고조선 서쪽(서방 2천여 리)을 점령한 뒤 연에 속하게 된 고조선 지역 토착 세력의 후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고연인(故燕人)). 위만(?~?)은 집권 후 주변의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구체적 시기는 불확실).

*위만 조선 멸망 후(기원전 108) 위만에게 복속된 이 옛 지역에 다시 진번(郡)과 임둔(郡)이 설치된다(명목상으로는 설치되었다는 설 있음).

오답 해설>

①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는 일은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연맹 왕국 단계에 행해지는 여러 일들** 중 하나이다(군장 국가 → 연맹 왕국 →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이며, 신라는 법흥왕 7년인 520년의 일이다. 백제는 제8대 왕인 고이왕 대(재위 234-286)에 율령이 반포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재위 27년(260)과 재위 27년(261) 사이에 중앙 관제인 6좌평과 16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리의 복색까지 재정하였다고 하니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반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6좌평·16관등제'의 완성 시기를 고이왕 대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토대 마련만 인정).

**왕위 세습(형제 → 부자 상속), 관제 정비(중앙과 지방 관제, 관리의 복색·관등 제정), 신분제 정비, 율령 반포·불교 수용, 정복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6좌평제의 마련을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거나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②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신라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일이다.

③ 내신좌평 등 여섯 명의 좌평을 거느린 것은 백제 고이왕 대 이후의 일이다(오답 해설 ① 참조).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 회의 수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03 - 초기 국가, 부여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산릉과 넓은 못[澤]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④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 ⑤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산릉과 넓은 못[澤]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초기 국가,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는 매년 12월에 영고(迎鼓)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영고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수렵 또는 농경의례 성격의 기원제이자 감사제이다.

부여는 [대가들인]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대가들은 대사자, 사자, 대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대가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벌음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④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한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⑤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2번 오답 해설>

⑤ 지방의 여러 성에 옥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둔 것은 고구려이다. 『신당서』에 고구려에는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다. 대성의 장관이 '녹살'로 되어있는데 이는 '옥살(褥薩·褥薩·辱薩)'을 가리킨다.

04 - 백제 도읍[수도]의 문화유산

4.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답사 계획서 ●

◆ 주제: 백제 왕들의 흔적을 찾아서
 ◆ 기간: 2023년 ○○월 ○○일~○○일
 ◆ 답사 지역 및 일정 안내

- ① (가) - 웅진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 ② (나)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 ③ (다) - 성왕이 전사한 곳이다.
- ④ (라) - 사신도 벽화가 남아 있는 무덤이 발견되었다.
- ⑤ (마) - 수부(首府)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정답> ③

'답사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백제 왕들의 흔적을 찾아서'가 나와 있다. 이어 답사 지역 및 일정 안내에 1일차로 '(가) 공산성, (나) 무령왕릉'이, 2일차로 '(다) 부소산성, (라) 능산리 고분군'이, 3일차로 '(마) 왕궁리 유적'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충남 공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모두 백제 도읍[수도]과 관련된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이 전사한 곳은 관산성 부근인 '구천'이라는 곳이다(554, 성왕 32).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이다. 부소산성은 충남 부여에, 정확하게는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의 부소산에 위치한다.

오답 해설>

- ① 공주 공산성은 원래 백제 시대에는 웅진성으로 불렸다가 고려 시대 이후 공산성으로 불리고 있다.
- ② 공주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하였다(벽돌 무덤). 벽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 ④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현재 총 7개의 무덤이 복원되었다. 그중 1호 무덤에 사신도와 연꽃무늬, 구름무늬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익산 왕궁리 고분군에서는 왕의 거처와 중앙 행정 기구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수부(首府)'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를 비롯해 수막새, 토기, 자기, 인장기와(기와에 명문 인장 등이 찍혀 있는 기와), 유리·금·철 제품, 등잔 등 약 1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대관사(大官寺)와 유사한 사찰명인 대관궁사(大官宮寺), 대관관사(大官官寺), 관궁사(官宮寺) 등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도 출토되었다.

05 - 안시성 전투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나)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 만약 폐하께서 천조(天朝)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무리를 없애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술직(述職)*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술직: 제후가 임조하여 천자에게 맡은 직무를 아뢰는 것

- 『삼국사기』 -

- 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였다.
- ②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당군을 물리쳤다.
- ③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④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 ⑤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②

(가)에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야성 전투에서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춘(?~?)이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 제31대)의 명을 받아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경남 합천 위치)을 함락시킨 것은 642년(신라 선덕 여왕 11/백제 의자왕 2) 8월의 일이다. 이때 신라의 김춘추(604~661)는 사위인 도독 김품석과 자신의 딸 고타소[고타소랑](?~642)를 잃었다. 이에 김춘추는 그해 가을(9월경) 선덕 여왕의 허락을 받고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려 갔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억류당했다가 겨우 탈출하였다.

(나)에는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길, …… 만약 폐하께서 천조(天朝)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무리를 없애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술직(述職)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 태종도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김춘추가 당에 가서 당 태종(재위 626~649, 제2대)에게 요청하여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진덕 여왕 2년인 648년의 일이다(나당 동맹).

*술직(述職): 제후가 임조하여 천자에게 맡은 직무를 아뢰는 것. 『맹자』 양혜왕 하편에 '천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고 하며,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곳을 돌아보는 것이다. 제후가 천자를 찾아가 보고하는 것을 술직이라 하는데, 술직은 직무를 아뢰는 것이다'는 구절이 있다.

고구려와 당 사이에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고구려 보장왕 4년인 64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한 것은 재위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참고로 안승은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의 아들이다

<18쪽 33번 아래 추가 해설>

06 - (통일) 신라 말에 있었던 사실

6.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탑기에는 진성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란과 흉년으로 약 중의 약이 없는 곳이 없고 도처에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신이 널려 있다.'고 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길상탑과 그 안에서 나온 묘길상탑기(탁본)

- ① 원광이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②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④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정답> ③

'합천 해인사 길상탑과 그 안에서 나온 묘길상탑기(탁본)'이라는 제목 아래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탑기에는 진성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란과 흉년으로 약 중의 약이 없는 곳이 없고 도처에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신이 널려 있다고 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남 합천군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 길상탑의 내부에서 1965년 157개의 소탑(小塔)과 고운 최치원(857~?)이 지은 4장의 탑지석(塔誌石)이 발견되었다[최치원의 '해인사 묘길상탑기(海印寺妙吉祥塔記)'] , 여기에 신라 진성 여왕(재위 887-897, 제 51대) 9년인 895년에 발생한 초적(草賊)의 약탈과 전란에서 불교 사원을 지키다 희생된 승려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삼층 석탑(길상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895, 진성 여왕 9).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것은 신라 진평왕 23년인 601년의 일이다. 또 원광은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608, 진평왕 30). 결사표는 수[양제]에게 사신을 통해 3년 뒤인 611년에 보내졌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 ② 이차돈(506~527)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신라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 ④ (재상) 거칠부(502~579)가 왕명에 의해 [여러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한 것은 신라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 ⑤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신라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자장이 건립을 건의한 것은 643년(선덕 여왕 12)].

07 - 금관가야

7.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의 대표적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가 회현리 패총과 합쳐져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김수로왕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전해진 (가)의 초기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으로 확대 지정

- 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③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 ④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으로 확대 지정'이라는 제목 아래 '(가)의 대표적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가 회현리 패총과 합쳐져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유적은 김수로왕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전해진 (가)의 초기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나라'는 금관가야를 가리킬 수 있다. 참고로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와 합쳐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된 것은 2001년 2월의 일이다. 금관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왜 등에 철을 수출하였다(같은 지역에 이전에 존재하였던 삼한의 변한도 해당). (금관)가야는 이처럼 낙랑군과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여 이익을 얻었다.

*낙랑군: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에 세워져 기원후 313년까지 존속하였다(고구려 미천왕이 재위 14년인 313년에 낙랑군 축출).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최고 행정 관서인)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둔 나라는 신라이다[651(진덕 여왕 5) 집사부 설치]. 참고로 집사부(와 창부)의 전신으로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稟主)가 설치된 것은 진흥왕 26년인 565년의 일이다(집사부 설치로 651년에 폐지).
- ② 집집마다 부경(桴京)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③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던 나라 역시 고구려이다. 초기 국가,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는 백제이다(부여씨→고구려 동명왕 계통). 왕비족으로 진씨와 해씨가 있었고, 귀족으로 사씨(사택씨), 연씨, 국씨, 목씨, 백씨, 협씨가 있었다.

08 -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

8.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 왕은 이름이 구부이고,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

○ 진(秦)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방물(方物)을 바쳤다.

- 『삼국사기』 -

- 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②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③ 서안평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왕은 이름이 구부이고,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진(秦)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방물(方物)*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왕'은 고구려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의 아들인 소수림왕(재위 371-384, 제17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소수림왕은 소해주류왕(小解朱留王)이라고도 하며 이름은 구부(丘夫)이다. 고국원왕 25년인 355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태학이 설립된 것은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의 일이며 같은 해에 불교도 공인되었다(율령 반포는 이듬해인 373년). 소수림왕은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물(方物):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조공품(朝貢品) 또는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국왕에게 바치는 그 지방의 토산물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②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평양 천도).

③ 서안평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미천왕 대(재위 300-331, 제15대)의 일이다. 재위 12년인 311년에 (압록강 하류 지역인) 서안평을 점령하였으며, 재위 14년(313)에는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듬해인 재위 15년(314)에는 대방군까지 정벌하였다.

④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광개토 대왕 대(재위 391-412, 제19대)의 일이다. 광개토 대왕은 즉위 직후부터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391~412). 영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기도 하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을파소(?~203)를 (국상으로) 등용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한 것은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의 일이다.

09 - 고려 성종 대에 볼 수 있는 모습

9. 밑줄 그은 '교서'를 내린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상평창을 양경(兩京)과 12목에 설치하고 교서를 내렸다. "『한서』 식화지에 '그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곡식을 풀거나 거두어들이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였다. …… 경시서에 맡겨 곡식을 풀거나 거두어들이도록 하라."

- ① 서적포에서 책을 인쇄하는 관리
- ② 국자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
- ③ 양현고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원
- ④ 9재 학당에서 유교 경전을 읽는 학생
- ⑤ 청연각의 소장 도서를 분류하는 학사

정답> ②

'상평창을 양경(兩京)과 12목에 설치하고 교서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서』 식화지에 그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곡식을 풀거나 거두어들이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였다. …… 경시서에 맡겨 곡식을 풀거나 거두어들이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 설치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성종(재위 981-997), 제6대).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설치되었다.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종은 재위 11년인 992년에 태조 때부터 있었던 경학(京學)을 국자감으로 개편하면서, ① 국자학, ② 대학, ③ 사문학(四門學), ④ 율학(律學), ⑤ 서학(書學), ⑥ 산학(算學) 등 6개의 전문학과를 두었다. 992년에 이르러 종래의 학교를 개편, 정비하면서 국자감이라 이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관학 진흥책). 서적포는 일종의 출판 관련 기관이다.

③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관학 진흥책). 참고로 예종은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도 두어 운영하였다(1109, 고려 예종 4).

④ 최충(984~1068)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의 일이다. 최충의 9재 학당이 처음 문을 열어 유학 교육에 힘쓴 것은 고려 문종 9년인 1055년으로, 이후 이를 본받은 사학 12도가 형성되었다(이중 11개가 도읍인 개경에 설치).

⑤ 청연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한 것은 고려 예종 11년인 1116년의 일이다. 청연각은 경서(經書)를 강론하며, 임금에게 진강하는 등 문예와 예악으로써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일종의 궁중 도서관이다. 참고로 또 이때 보문각도 함께 설치하였는데, 보문각은 청연각이 궁중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출입과 숙직이 불편하다 하여 따로 설치한 문한 관서로, 경연과 장서(藏書)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10 - 발해의 문화유산

10.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특집] 우리 역사를 찾아서 - 영광탑



영광탑은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에 있으며, 벽돌을 쌓아 만든 누각 형태의 전탑이다. 지하에는 무덤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중국 측의 조사에서 (가)의 탑으로 확정하였다.



정답> ①
 '우리 역사를 찾아서 -영광탑'이라는 제목 아래 '영광탑은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에 있으며, 벽돌을 쌓아 만든 누각 형태의 전탑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하에는 무덤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중국 측의 조사에서 (가)의 탑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 국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불상으로, 발해의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동경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시대의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78m, 광배 높이 3.8m이다.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곁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국보 제45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이다.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전해진다.

③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④ 신라의 경주 석굴암 본존불이다(국보 제24호). 신라 경덕왕 10년(751) 불국사가 창건될 시기에 같이 조성되었다. 석굴암은 경북 경주의 토함산 정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 사찰로, 당시 신라인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미, 성숙한 조각 기법 등을 보여준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8쪽 33번 아래 추가 해설>

11 - 고려 광종 대의 사실

11.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공은 대송(大宋) 강남 천주 출신이다. …… 예빈성 낭중에 임명하고 집 한 채를 내려주었다.

이것은 고려에 귀화한 채인범의 묘지명으로 현존하는 고려 시대 묘지명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가)은/는 채인범, 쌍기 등의 귀화인들을 적극 등용하였습니다.



-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 ②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 ④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⑤
 왼쪽 박스에 '공은 대송(大宋) 강남 천주 출신이다. …… 예빈성 낭중에 임명하고 집 한 채를 내려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에는 '이것은 고려에 귀화한 채인범의 묘지명으로 현존하는 고려 시대 묘지명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가)은/는 채인범, 쌍기 등의 귀화인들을 적극 등용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의 제4대 국왕인 광종(재위 949-97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노비안검법은 양민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광종은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광종은 즉위년(949)에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재위 4년인 953년까지 사용], 이후 중국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재위 11년인 960년에 이르러 다시 '준풍(峻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광종 14년인 963년에 중국 송과 국교를 연 후에는 송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자국의 연호(준풍)를 폐지하였다. [백관의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한 것은 광종 11년(960)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재상이자 문신인) 최승로(927~989)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고려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②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 제정된 일종의 전제 개혁법으로, 토지 국유화를 원칙으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전·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1391, 고려 공양왕 3). 이때 나누어 준 토지(분급 수조지)가 곧 '과전(科田)'이다(주로 경기도에 집중).

③ 신돈(?~1371)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어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18쪽 33번 아래 추가 해설>

12 - 고려의 지방 통치 체제

12. (가) 시대의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개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었습니다. 해음원지를 통해 개경 외에 남경, 동경 등이 설치되었던 (가) 시대 원(院)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전국에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 ③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다.
- ④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두었다.
- 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정답> ③

'고지도와 항공 사진을 통해 본 해음원지'라는 제목 아래 '개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음원지를 통해 개경 외에 남경, 동경 등이 설치되었던 (가) 시대 원(院)*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시대'는 고려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원(院)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로 도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둔 국영 숙박 시설의 일종이다. 대개 역(驛)과 관련되어 역의 중간 지점에 설치되므로 보통 역원(驛院)이라 하였다. 공무 여행자의 교통 숙박 시설 중에는 관(館)도 있는데, 객관(客館) 혹은 객사(客舍)로 불린 관은 군현의 읍치(중심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원과 구별된다. 원이 언제부터 설치·운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 때부터 관, 역과 함께 많이 설치되었고 특히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에서 많이 운영하였다. 원들은 주로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교역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파주 해음원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다. 해음원은 남경(서울)과 개성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1122, 예종 17). 해음령은 광탄면과 고양시 고양동 일대를 연결하는 고개로 조선 시대까지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던 것은 고려 시대이다[향, 부곡은 삼국 시대부터 있었다(유의)], 여기에 거주한 주민들은 차별을 받았다. 즉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양민이지만 일반 양민보다 하층 신분으로 여겨졌으며 일반 군현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졌다. 또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의 일이다(6세기 초 추정).
- ② 전국에 9주 5소경을 설치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5, 신문왕 5).
- ④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둔 것은 신라의 문무왕 대(재위 661-681, 제30대)이다(673, 문무왕 13). 행정 통제와 관리 감찰을 위해 설치한 외관직으로, 근무지는 지방[9주]이었지만 주·군의 장관 밑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의 감찰 기구인 사정부 소속의 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과 군사권 박탈).

13 - 12세기 전반의 국내외 주요 사건

13.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금의 군주 아구다가 국서를 보내 이르기를, "형인 금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 이제는 거란을 섬멸 하였으니, 고려는 우리와 형제의 관계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 관계를 이루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나) 윤관이 여진인 포로 346명과 말, 소 등을 조정에 바치고 영주·북주·웅주·길주·함주 및 공험진에 성을 쌓았다. 공험진에 비(碑)를 세워 경계로 삼고 변경 남쪽의 백성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

(다) 정지상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들의 뜻에 따르시어 금을 제압하소서."라고 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③

(가)에 '금의 군주 아구다*가 국서를 보내 이르기를, 형인 금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 이제는 거란을 섬멸하였으니, 고려는 우리와 형제의 관계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 관계를 이루기 바란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금에서 화친을 요청해 온 사안으로, 고려 예종 12년(1117) 3월의 일이다[예종(재위 1105-1122), 제16대](『고려사』).

*아구다[아골타]: 여진 완연부의 족장으로 1115년에 금을 건국하였다(재위 1115-1123). 북송과 동맹을 맺고 1123년에 중경과 연경을 점령함으로써 요를 실질적으로 멸망시켰다[요는 거란이 세운 나라(916~1125)].

(나)에는 '윤관이 여진인 포로 346명과 말, 소 등을 조정에 바치고 영주·북주·웅주·길주·함주 및 공험진에 성을 쌓았다. 공험진에 비(碑)를 세워 경계로 삼고 변경 남쪽의 백성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1040~1111)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그 지역에 동북 9성을 설치한 것은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이후 1109년에 조공을 약속한 여진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북 9성 반환).

(다)에는 '정지상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들의 뜻에 따르시어 금을 제압하소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지상(1084~1135)은 동향인인 묘청(?~1135), 백수한(?~1135) 등의 서경 세력[일파]에 가담하여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1135, 고려 인종 13)(서경 천도 운동). 정지상은 문신이자 뛰어난 시인이기도 하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14 - 한국사의 천문 관련 사례

14. ㉠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 무용총에 별자리를 그린 벽화가 있어.
- ② 삼국사기에 일식, 월식에 관한 많은 관측 기록이 있어.
- ③ 충선왕은 서운관에서 천체 운동을 관측하도록 했어.
- ④ 선조 때는 날아가서 폭발하는 비격진천뢰가 개발되었어.
- ⑤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어.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새긴 조선 시대 대표적인 천문도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이름은 천문 현상을 12개 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놓았다는 뜻이래'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한국의 역사에서 천문에 관한 또 다른 사례를 알려줄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대에 만들어진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1395, 태조 4).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하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

비격진천뢰는 군사 무기[화기]로 일종의 포탄이다.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뢰를 발명한 인물은 조선 선조 때 군기시 화포장이었던 이장손(?~?)이다. 폭탄, 화약 첩편(鐵片), 뇌관을 속에 넣고 겉은 쇠로 박처럼 둥글게 싼 것으로, 먼 거리에 쏘아 터지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에 실전에 사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경주 탈환전, 해군 함포에도 이용).

오답 해설>

- ① 무용총은 중국 지린성 지안현 통거우에 위치한 고구려의 (벽화)고분이다. 무용총에는 고구려의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와 무용도, 접객도, 기마도. 남녀 군무상, 합창대상(合唱隊像)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 천장에 연화문 등의 장식문, 사신도(四神圖), 일월상도(日月象圖)[별자리 그림]를 포함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무용총의 벽화는 옆에 있는 각저총과 함께 4세기 말 또는 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활달한 화풍을 가진 가장 고구려적인 벽화로 평가받고 있다.
- ② 삼국사기에는 일식, 월식에 관한 많은 관측 기록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서운관은 고려 시대에 천문, 역수(曆數)*, 측후(測候)**, 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아보던 기구이다. '사천대', '사천감' 관후서' 등으로 불리다가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서운관이라 하였다. 쉽게 말해 서운관은 고려 시대의 천문 관측 기구라 할 수 있다(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에 관상감으로 개칭).

<18쪽 33번 아래 추가 해설>

15 - 삼별초

15.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 ②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 ③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편성되었다.
- ④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 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 부대였다.

정답> ④

'이것은 태안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죽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외선 촬영 기법을 통해 상어를 담은 상자를 우□□별초도령시랑 집에 보낸다는 문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별초는 우별초로 해석되는데, 우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조직한 (가)의 하나로 시랑은 장군 격인 정 4품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군사 조직'은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한 삼별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32~1273)(특수 군대, 사병 부대). 최우(집권 1219-1249)에 의해 만들어진 좌별초, 우별초와 최항 집권기(1249-1257)인 1254년(고종 41) 이후에 만들어진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삼별초가 (전남)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항전한 것은 1270년(고려 원종 11)에서 1271년(원종 12)의 일이다(1270.6~1271.5, 진도 삼별초)[배중손(?~1271)이 지휘]. 이후 삼별초는 제주도로 건너가 1271년(원종 12) 5월에서 1273년(원종 14) 6월까지 김통정(?~1273)의 지휘로 몽골에 계속 항전하였다(항파두리성).

오답 해설>

- 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된 군사 조직은 어영청이다.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원년인 1623년이다(처음에는 총융청에 소속되었다가 1628년에 새로 설치). 당시 수도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던 훈련도감과 더불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후금: 만주족의 우두머리인 누르하치(재위 1616-1626, 제1대)가 1616년에 세운 나라이다. 이후 1636년에 황제국을 표방하고 나라 이름을 '대청(大清)'으로 바꾸었다. 1644년에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다.
- ②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한 군사 조직은 고려군이다.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에 제1차 일본 원정을, 충렬왕 7년인 1281년에 제2차 일본 원정이 단행되었지만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태풍으로 모두 실패하였다.
- ③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편성된 군사 조직은 윤관(1040~1111)의 건의로 만들어진 별무반이다(1104, 고려 숙종 9). 별무반은 예종 2년인 1107년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이후 1109년에 조공을 약속한 여진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북 9성 반환).
- 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 부대는 고려의 중앙군 중 일부이다(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

16 - 원 간섭기의 사실

16.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서술형 평가 ○학년 ○○반 이름: ○○○

◎ 아래의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 윤수는 응방을 관리하였는데 권력을 믿고 악행을 행하여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았다.

○ 유청신은 몽골어를 익혀 여러 차례 원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

○ 기철과 형제들은 누이동생이 원 순제의 황후가 된 후 국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다.

답안

- ①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습니다.
- ②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 ③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습니다.
- ④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습니다.
- ⑤ 상민층이 납속과 공명첩을 활용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습니다.

정답> ③

'아래의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에 대해 서술하십시오'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윤수는 응방*을 관리하였는데 권력을 믿고 악행을 행하여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았다'는 내용과 '유청신은 몽골어를 익혀 여러 차례 원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 '기철과 형제들은 누이동생이 원 순제의 황후가 된 후 국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모두 원 간섭기**에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윤수(?~?), 유청신(?~1329), 기철(?~1356)은 모두 원 간섭기의 친원파로 권문세가로 행세하였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한 것은 원 간섭기의 일이다. 일종의 '몽골풍'이다(원에서는 반대로 고려 풍습인 '고려양' 유행)

*매(해동청)를 조련시키는 응방(鷹坊)에 대한 기록은 충렬왕 원년인 1275년에 처음으로 보인다. 몽골에서 매를 보내라는 요구가 잦아 충렬왕 9년인 1283년에 응방을 관장하는 응방도감을 두기도 하였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답 해설>

- ①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다.
- ④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무신 정권기)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명학소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탄방동(炭坊洞)이라는 현재의 지명이 숯방이·숯뱅이, 즉 숯을 굽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망이와 망소이를 비롯한 명학소민이 숯을 생산하는 하층의 신분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상민층이 납속(納粟)과 공명첩(空名帖)을 활용하여 신분 상승을 꾀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즉 양 난 시부터 조선 정부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 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거나 벼슬을 내리는 납속과 공명첩 정책을 시행하였다. 공명첩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실적을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줌).

17 - 직지심체요절

17.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하였다.
- ②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다.
- ③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하였다.
- ④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 ⑤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정답> ②

맨왼쪽(1/3)에 '2023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열린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에서 (가)이/가 공개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운데(2/3)에는 '1973년 동양의 보물전 이후 50년 만에 대중에게 전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3/3)에는 '승려 백운이 편찬한 불서로 제자들이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하였습니다. 현재 하권만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문화유산'은 직지심체요절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377, 고려 우왕 3).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즉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다. 1972년 박병선 박사(1928~2011)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외규장각 의궤(강화도 보관)가 탈취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 고종 3). 하지만 직지심체요절은 한말에 주한프랑스 초대 공사로서 서울에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Plancy, C.de.) (1851~1895)가 수집한 장서 중 하나였다(후손이 1950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
- ③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문화유산은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것은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이다.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조판하였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완료 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 ④ 장영실(1390?~1450?), 이천(1376~1451) 등이 제작한 (금속) 활자는 갑인자이다(1434, 세종 16). 세종 2년인 1420년에 처음 만든 경자자를 더 크고 보기 좋게 세 번째로 다시 만든 금속 활자이다. 갑인자로 자치통감(갑인자본)을 인쇄하였다(1436, 세종 18).
- ⑤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석탑의 탑신부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만들어진 것은 8세기 전반(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불경 인쇄본]이다.

18 - 삼봉 정도전

18.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②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③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 ④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 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 ⑤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던 인물에 대해 말해 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인물'은 조선의 개국 공신 삼봉 정도전(1342~1398)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씨잡변』(불교의 교리 비판)을 지은 것은 태조 3년(1394)으로, 같은 해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에게 바쳤다. 또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인 경복궁*을 지을 때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기도 하였다(1395, 태조 4).

*경복궁에서 '경복'의 유래: 『시경』 주아(周雅)편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풍기 군수 신재(愼齋) 주세붕(1495~1554)에 의해 건립된 것은 중종 38년인 1543년의 일이다.
- ②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인물은 보한재[희현당] 신숙주(1417~1475)이다(1471, 성종 2).
- ③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임을 알 수 있다. 성학십도가 저술된 것은 선조 원년인 1568년의 일이다.
- ⑤ (유배 중이던 전남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817, 순조 17).

19 - 조선 세조(직전법)

19.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정답> ②

'작품명: 출기파적도(出奇破賊圖)*라는 제목 아래 '이 그림은 이시애가 일으킨 반란을 좌대장 어유소가 진압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시애는 (가)의 호패법 재 실시 등 중앙의 통제 강화에 반발하여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함길도 토착 세력인 무신 이시애(?~1467)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킨 것은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을 실시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에 실려 있다. 『북관유적도첩』은 17~18세기에 만들어진 역사 화첩(畵帖)으로, 북관(지금의 함경도)에서 용맹과 기개를 떨친 장수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화자 미상). 고려 예종 대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총 8가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척경입비(拓境立碑), 야연사준(夜宴射樽), 야전부시(夜戰賦詩), 출기파적(出奇破賊), 등림영회(登臨詠懷), 일전해위(一箭解圍), 수책거적(守柵拒敵), 창의도왜(倡義討倭)].

오답 해설>

- ①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한 것은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한 것은 광해군 원년인 1609년의 일이다. 광해군은 에도 막부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부산에 왜관 설치).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일이다. 김굉필(1454~1504), 정여창(1450~1504) 등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었다.

**폐비 윤씨 사사 사건: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폐비) 윤씨(?~1482)는 성종 10년인 1479년에 폐출되었다가 성종 13년인 1482년에 사사(賜死)된 일을 가리킨다.

20 - 임진왜란

20. (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나선 정벌의 전적지를 검색한다.
- ② 북학론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③ 명량 해전의 승리 요인을 분석한다.
- ④ 삼정이정치의 활동 내용을 찾아본다.
- ⑤ 4군과 6진을 개척한 과정을 알아본다.

정답> ③

'전쟁과 귀화인'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에 김충선(1571~1642)이라는 인물에 '(가) 당시 일본군 사야가는 조선에 항복한 후 조총 기술의 보급 등에 기여하였다. 이후 공을 인정받아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에 천만리(1543~?)라는 인물에는 '명의 장수로 (가)에 참전한 천만리는 평양성, 울산성 등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조선에 남았다. 전공이 인정되어 화산군에 봉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4~1598.11, 정유재란 포함].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1545~1598)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것은 조선 선조 30년인 1597년 9월의 일이다[명량 대첩(명량 해전)].

오답 해설>

①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이다.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술)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술) 두 차례 나선 정벌이 단행되었다.

② 북학론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으로 청의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이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의 서문으로 작성한 글에 관련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실리론적(실용론적, 현실론적, 실학론적) 세계관인 '북학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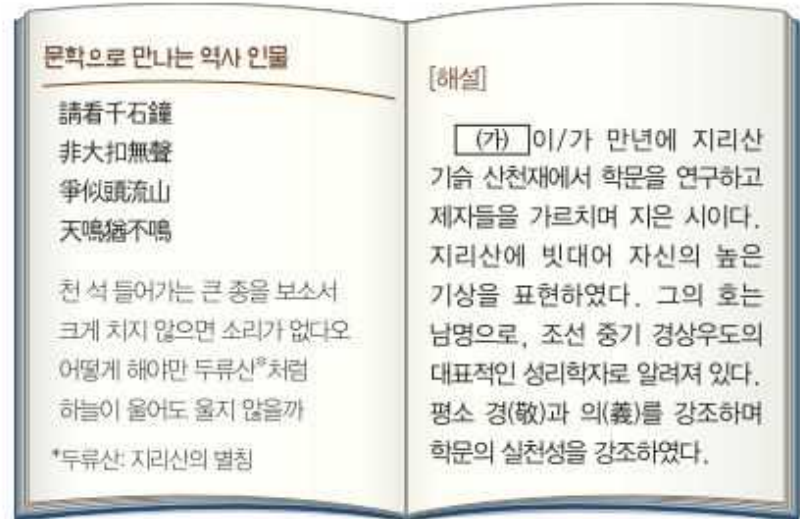
④ 진주 농민 봉기 발생 후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환재 박규수(1807~1877)가 안핵사*로 파견되었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1862년(철종 13) 5월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안핵사(按察使): 조선 후기 지방에서 민란이나 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의 처리 [수습]를 위해 파견된 임시 직책이다. 목사, 군수 등 인근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중앙의 관리인 경관(京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안핵사는 사건의 원인과 진행 등의 전말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또, 사건의 처리 방안을 건의하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려 하였다. 사실 안핵사가 파견된다 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으므로 관리들은 임명을 꺼려하였다. 또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안핵사가 파견되었던 것도 아니다.

⑤ 4군 6진이 설치되어 북방 영토가 개척된 것은 조선 세종 대(재위 1418-1450, 제4대)의 일이다[4군(1433, 세종 15)/6진(1434, 세종 16)]. 4군은 최윤덕(1376~1445), 6진은 김종서(1383~1453)에 의해 개척하였는데,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21 - 남명 조식의 활동

21.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광재우, 정인홍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③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 ⑤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정답> ①

'문학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천석 들어가는 큰 종을 보소서/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오/어떻게 해야만 두류산*처럼/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라는 한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해설로 '(가)이/가 만년에 지리산 기슭 산천재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은 시이다. 지리산에 빗대어 자신의 높은 기상을 표현하였다. 그의 호는 남명으로, 조선 중기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평소 경(敬)과 의(義)를 강조하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남명 조식(1501~1572)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시된 한시는 '제덕산계정주(題德山溪亭柱)'로 경남 산청 덕산 시냇가 정자의 기둥에 쓴 시이다.

조식은 망우당 광재우(1552~1617), 내암 정인홍(1536~1623)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광재우는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고향 경남 의령에서 군사를 모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통솔력이 강하고 애국심과 실천력이 뛰어났으며, 정암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1592.7)(정인홍도 임진왜란 때 경북 성주와 고령, 경남 합천과 함안 등에서 의병장으로 활약). 남명 조식의 문인(門人)들은 주로 (광해군 대의) 북인(北人)이 되었다. 정인홍은 대북의 영수로 활약하였다.

*두류산: 지리산의 별칭

오답 해설>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③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산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1519, 중종 14)(기묘사화).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한 인물은 초정 박제가(1750~1805)이고(1778, 정조 2).

⑤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22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22.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안)

조선,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다!

■ 기획 의도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왕의 모습에서 '민본'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 장면별 주요 내용

#1. 왕은 관리와 백성을 대상으로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찬반 조사를 명하다.
 #2. 호조에서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이라는 결과를 보고하다.
 #3.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는 내용의 공법을 확정하다.

- ①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 ②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 ③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 ④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 ⑤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정답> ②

'조선,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다!'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왕의 모습에서 민본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면별 주요 내용으로 '#1. 왕은 관리와 백성을 대상으로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찬반 조사를 명하다', '#2. 호조에서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이라는 결과를 보고하다', '#3.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는 내용의 공법을 확정하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공법이 확정된 것은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이 간행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아)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한 농업 서적이며, 관찬(官撰)으로 간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것은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 ③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가 시행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④ 구암 허준(1539~1615)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하여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광해군 2년인 1610년의 일이다(선조 대부터 집필 시작). 내의원에서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출간하였다.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것은 성종 12년인 1481년의 일이다.

23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3.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벽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의 상인
- ②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가
- ③ 광산 노동자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덕대
- ④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 ⑤ 저잣거리에서 영웅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정답> ①

맨왼쪽 말풍선에 '송파장에 왔으니 산대놀이 보고 가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송파장에 사람들도 많고 상평통보도 두둑이 챙겨서 좋네'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쌀 팔고 고추, 담배 사러 왔는데 이런 구경도 하게 되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송파장'과 '산대놀이*', '상평통보'**라는 용어, '고추,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상황은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벽란도에서 송의 상인이 인삼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벽란도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다(벽란도라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정에서 유래).

*송파장에서 산대놀이가 공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산대놀이는 조선 후기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서 공연된 가면극으로, 송파 산대놀이는 현재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1973년). 또 송파장은 서울 송파, 정확하게는 지금의 서울 송파동이 아니고 한강변 언덕 위에 있던 구(舊)송파진(송파나루)으로, 석촌 호수 부근에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5일장이었으나 점차 거래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가 늘어나면서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상평통보가 법화(화폐)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부터이다(조선 후기). 이후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오답 해설>

- ②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가 그려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예를 들어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한 '작호도').
- ③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德大)가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이 활동한 시기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저잣거리에서 영웅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傳奇叟)가 활약한 시기 역시 조선 후기이다. 한글 소설 역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행하였다. 전기수는 조선 후기에 (고전)소설을 직업적으로 낭독하던 사람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장시에 자리를 잡고 소설을 낭독하였다.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면 소리를 그치고 청중들이 돈을 던져 주기를 기다렸다가 낭독을 계속하였다.

24 - 조선 영조(균역법)

24.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②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 ④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⑤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정답> ⑤

'초상과 어진으로 만나는 조선의 왕'이라는 제목 아래 '왼편은 연잉군 시절인 20대의 초상이며 오른편은 50대의 어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즉위 후 탕평 교서를 반포하고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하였으며,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왕'은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영조가 탕평 교서를 반포한 것은 재위 원년인 1725년이며, 탕평비를 건립한 것은 재위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또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한 것은 재위 36년인 1760년이며,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자 한 것은 재위 47년인 1771년의 일이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것은 영조 25년인 1750년의 일이다(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어장세, 소금세 등으로 줄여든 수입을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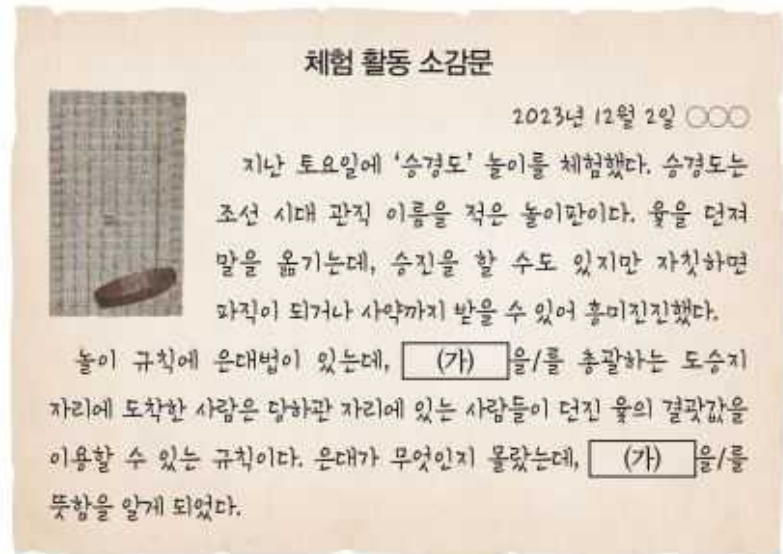
*신문고: 태종 원년인 1401년에 '등문고'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한 달 뒤 신문고로 이름 바뀜)(명종 대와 효종 대까지는 신문고 대신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제 실시). 영조는 창덕궁의 진선문과 시어소의 건명문 남쪽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였다. 민원 해결뿐 아니라 왕권에 적대적인 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데도 기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 ②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것은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③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종량]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총 6만 6,067명)(1801.1.28).
- ④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을 추진한 것은 효종 3년인 1652년의 일이다. 북벌의 대상은 청(나라)이었다. 참고로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원년인 1623년이다(처음에는 총융청에 소속되었다가 1628년에 새로 설치).

25 - 승정원

25. (가) 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 ②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③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죄인을 다스렸다.
- ④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

정답> ④

'체험 활동 소감문'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토요일에 승경도 놀이를 체험했다. 승경도는 조선 시대 관직 이름을 적은 놀이판이다. 옷을 던져 말을 옮기는데,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파직이 되거나 사약까지 받을 수 있어 흥미진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놀이 규칙에 은대법이 있는데, (가)을/를 총괄하는 도승지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당하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옷의 결괏값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은대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가)을/를 뜻함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은대(銀臺)'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관서'는 승정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은 은대 외에도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연사(代言司) 등으로 불렸다(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로 칭함).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관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관서는 한성부이다.
- ②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한 관서는 의정부이다. 의정부가 명실공히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최고 행정 기관이 된 것은 태종 원년인 1401년의 일이다. 의정부를 도당(都堂) 또는 황각(黃閣)이라고도 하였다.
- ③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죄인을 다스린 관서는 국왕 직속 사법 기구인 의금부이다. 조옥(詔獄), 금오(金吾), 왕부(王府)라고도 불렸다.
- 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설치된 관서는 비변사이다. 비변서를 신설처음 설치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 이후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 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문무 합의 기구). 비국(備局), 묘당(廟堂), 주사(籌司)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초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26 - 기해예송(1차 예송)

2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 송준길이 아뢰었다. “적처(嫡妻) 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3년 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 허목이 상소하였다. “장자를 위해 3년 복을 입는다는 것은 위로 쳐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입니다. …… 첫째 아들이 죽어서 적처 소생의 둘째를 세우는 것도 역시 장자라고 부릅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계유정난 | 중종반정 | 을사사화 | 인조반정 | 경신환국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위의 자료에 '송준길이 아뢰었다. 적처(嫡妻) 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3년 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효종 사후 서인인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사종(四種)의 설을 인용하여, 대행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이니 (자의 대비**는) 기년복(淸年服), 즉 1년복을 입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기년설(1년설)][1차 예송(기해예송), 1659(현종 즉위년)]. 아래의 자료에는 '허목이 상소하였다. 장자를 위해 3년 복을 입는다는 것은 위로 쳐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입니다. …… 첫째 아들이 죽어서 적처 소생의 둘째를 세우는 것도 역시 장자라고 부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의 대비의 복상이 거의 끝나가던 현종 1년(1660) 3월에 당시 사헌부 장령이자 남인인 미수 허목(1595~1692)이 상복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효종 대왕은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에 준하다고 보아, 대왕대비[자의 대비]께서는 3년 간 복상[참최복]을 하여야 한다며 (기년복이 아니라) '참최 3년복'을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참최설, 3년설]. 이를 통하여 주어진 자료는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1624~1688)의 복상 문제로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에 진행된 예송, 그중 1차 예송인 기해예송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주지하듯이 1차 예송인 기해예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서인의 기년설(1년설)이 채택되었다(서인 승리)[참고로 2차 예송(갑인예송)에서는 기년설(1년설)을 주장한 남인 승리, 서인은 대공설(9개월설) 주장]. 예송은 결국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함(장자로 대우)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과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장자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 간의 권력 투쟁[이념 대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행 대왕: 조선 시대에 왕이 승하한 후 중국으로부터 시호를 받기 전까지 부르던 임시 호칭이다. 이 기간에는 보통 승하한 왕을 대행 대왕(大行大王) 또는 대행왕(大行王)이라고 불렀다.

**자의 대비: 16대 국왕인 인조의 계비(1624~1688). 현종 대의 대왕대비(현 왕의 할머니)

연표에서는 인조반정(1623, 광해군 15)과 경신환국(1680, 숙종 6) 사이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

27 - 종묘

27.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②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③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일제 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⑤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정답> ②

'이 건물은 (가)의 정전입니다. (가)은/는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 처음 세웠는데,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지금의 위치에 건립하였습니다. 사직과 더불어 왕조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사진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문화유산'은 종묘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태조 4년인 1395년 9월 완성). 정확하게는 종묘의 정전 19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전*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 황태자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1995년에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5묘 제도를 따르다가 중기 이후부터는 치적이 많은 왕은 5대가 지나도 정전에 그대로 모셨으며, 그 밖의 신주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는데, 이를 조전(祧遷)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①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진 곳은 경복궁이다.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 병탄 이후 서울 남산의 왜성대 통감부 청사(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를 조선 총독부 청사로 사용하다 1926년 10월에 경복궁 내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참고로 조선 총독부 신청사는 김영삼 정부 시기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첨탑' 철거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96년 11월 13일에 해체를 완료(마지막 발파)하였다.

③ 조선 시대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공간[교육 기관]으로는 성균관과 향교가 있다. 명륜당은 강학 공간이고,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제향 공간[전각,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중앙에 모시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4성(聖)을 좌우에, 또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셨다. 대성전은 일명 '공자묘, 즉 문묘(文廟)의 정전'이다. 학생들은 대성전의 공자 신위에 먼저 술을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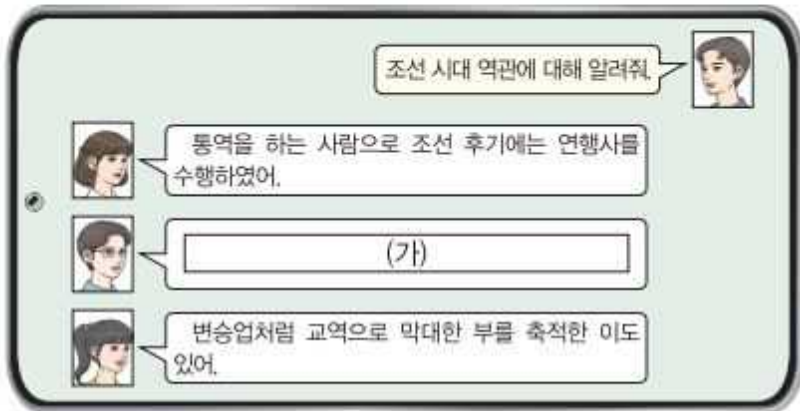
④ 일제 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한 곳은 창경궁이다(1911).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壽康宮)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었다(사적 제123호).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다. 순종 즉위 후인 1909년(순종 3)에 창경궁은 이미 일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는데, 일제는 이때 궁 안의 전각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으며, 궁원을 일본식으로 변모시켰다.

⑤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제단]은 사직단이다. 1년에 네 차례의 대사(大祀)와 여러 중사(中祀)를 지냈고, 그 밖에 기곡제(祈穀祭)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28 - 기술직 중인, 역관

28. (가)에 들어갈 대담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사간원에서 간쟁을 담당하였어.
- ②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어.
- ③ 수군, 봉수 등 천역에 종사하였어.
- ④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실무를 담당하였어.
- ⑤ 사역원에서 노걸대언해 같은 교재로 교육받았어.

정답> ⑤

'조선 시대 역관에 대해 알려줘'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 조선 후기에는 연행사를 수행하였어'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어 '(가)'와 '변승업*처럼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도 있어'라는 대답이 차례로 나와 있다.

노걸대언해는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 원문에 한글로 정음과 속음을 달아 번역하여 간행한 활자본 책이다(1675, 숙종 원년). 노걸대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진 중국어 학습서이므로 조선 시대에 한학[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역관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책[필독서]이라고 볼 수 있다.

*변승업(1623~1709): 그의 아홉 형제 중 여섯이 역관일 정도로 유명한 역관 가문 출신이다. 일본 통신사 일행의 수역(역관의 우두머리)로 일본을 다녀오는 등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당시 조선 제일의 갑부로 통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사간원은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양반, 그중 문반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기관이다(1401, 태종 원년).
- ②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신분은 노비이다. 노비는 조선 시대 천인의 일종으로 그 수가 많아 사실상 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수군, 봉수 등 천역에 종사한 신분은 양인[상민]이다. 그런데 신분은 양인인데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한 사람들로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하여 천시되었다.

**신량역천: 고려 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염간(鹽干·진척(津尺)·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등 '간'이나 '척'으로 칭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였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밖에도 수군(水軍)·조례(皂隸)·나장(羅將)·일수(日守)·조졸(漕卒)·역졸(驛卒)·봉군(烽軍)의 칠반천역(七班賤役)도 포함되었다.

- ④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기술직 중인의 하나인 향리(鄕吏)이다. 향리는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

29 - 개성의 역사

29.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았다.
- ②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 축조되었다.
- ③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 ④ 일제 강점기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였다.
- ⑤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 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정답> ④

'송악(松嶽)/개주(開州)/열린 성(城)의 도시 특별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지도 속 옛 궁성'이라는 고지도도 제시되어 있다. 송악과 개주 모두 개성(市)의 옛 이름이다. 신라 진흥왕 16년(555)에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신라 영토가 된 후 처음 송악군으로 개칭되었다(늦어도 7세기부터는 송악으로 부름). 개주는 고려 초 태조 2년(919)에 송악군과 개성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주로 신설하면서 지은 이름이다(이른바 '개경 개주')[이후 광종 때인 960년(광종 11)에 개경으로, 성종 때인 995년(성종 14)에 개성부가 됨]. 참고로 개경을 송악, 송도, 송경으로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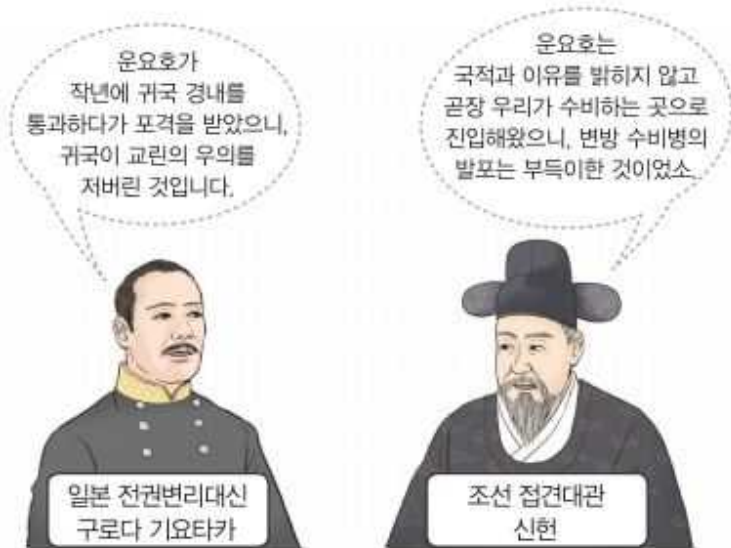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노동 운동가 강주룡(1901~1931)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곳은 평양[서경]이다. 즉 평양의 을밀대(평양의 고구려 시대 누정) 지붕에서 강주룡이 고공 시위를 전개하였다(1931.5.28). 지붕 위에서 무산자의 단결과 노동 생활의 참상을 호소하였다. 체포되어 평양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7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등 항의하다 결국 이듬해 서른한 살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①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 도읍으로 삼은 곳이 개성, 곧 개주(당시 명칭)이다(919, 태조 2)(철원에서 천도).
- ②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 축조된 곳 역시 개성이다. 즉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은 고려 시대의 석탑으로 원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1348, 충렬왕 4)(국보 제86호). 목조 건축을 연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으며,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1467, 세조 13).
- ③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한 곳 역시 개성이다.
- ⑤ 개성은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 남한에 속했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으로 북한에 속하게 되었다(휴전선 이북).

30 - 강화도 조약

30. 다음 대화가 오갔던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 ②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③ 일본 측의 해안 측량권이 인정되었다.
- ④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운요호가 작년에 귀국 경내를 통과하다가 포격을 받았으니, 귀국이 교린의 우의를 저버린 것입니다'는 일본 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1840~1900)의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운요호는 국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곧장 우리가 수비하는 곳으로 진입해왔으니, 변방 수비병의 발포는 부득이한 것이었소'라는 조선 접견대관 위당 신헌(1810~1888)*의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는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오갔던 회담임을 알 수 있다. 그 전해인 1875년 9월에 있었던 일본 군함 운요호의 강화도, 영종도 공격 사건(운요호 사건)을 일본은 조약 체결의 빌미로 삼았다(1876.2.27).

강화도 조약 제7관에서 일본 측의 (조선) 해안 측량권이 인정되었다.

*위당 신헌(1810~1884)은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1876년경으로 추정). 신헌은 조약 체결 직후부터 협상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초고를 작성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신헌의 초고를 정서한 것으로 보인다(학계 연구 결과, 상하 2권). 신헌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이었다.

오답 해설>

- ①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것은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다[1886.6. 제9조]. 사실 조약에서 직접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9조를 근거로 양국은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서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 ②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약으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성 조약과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 조약이 있다[각 1885년(고종 22) 1월/1885년 4월].
- ④ 조선 시대에 통신사**가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정사 박서생의 사절단, 교토에 파견). 참고로 막부 장군이 조선 국왕에게 파견하는 사절은 일본국왕사라고 하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이루어졌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서 통신사 일행이 방문한 곳마다 정치거나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 목객, 서민들까지 통신사들에게 서화, 시문, 글씨 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병풍, 회관(두루마리 그림), 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한편,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 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제4조에서 조선은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31- 동학 농민 운동과 시모노세키 조약

31.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고부에서 민란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 장흥 부사 이용태를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하여 밤새 달려가 엄격히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고 구별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 (나) 전봉준은 무주 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최근 일본이 경북공을 침범하였다. 국왕이 옥을 당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한다."
- (다) 청국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였는데, 이번에 마관(馬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드러나는 빛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①

(가)에 '고부에서 민란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 장흥 부사 이용태를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하여 밤새 달려가 엄격히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고 구별하여 보고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봉준(1855~1895)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지금의 전북 정읍) 관아를 습격한 것은 1894년(고종 31) 1월의 일이다(1894.1.10) (고부 농민 봉기). 그리고 장흥 부사 이용태(1854~1922)가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된 것은 같은 해 2월 16일의 일이다. 하지만 이용태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3월 2일에야 고부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신임 군수 박원명을 협박하여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무작정 잡아들이고 집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러 결국 동학 농민군이 제1차 봉기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나)에는 '전봉준은 무주 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최근 일본이 경북공을 침범하였다. 국왕이 옥을 당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본군이 경북공을 점령한 것은 1894년 6월 21일(양력으로는 7월 23일)의 일이다(일본군의 경북공 점령 사건).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과 내정 간섭은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즉 제2차 봉기로 이어졌다 [1894.10.9(음력)]. 이때는 전봉준이 이끈 남접군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이 충남 논산에 집결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재기포를 결심하면서 전봉준은 곳곳에 협조를 요청하는 통문을 보냈다. 그런데 무주 집강소에 보낸 위의 통문 자료는 초기의 통문 중 하나로 전체 내용이 청일 전쟁의 예봉이 매우 날카로워 자칫 선부르게 맞섰다가는 화가 종사(宗社)에 미칠지도 모르므로 일단은 자제하고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기세를 올려 계책을 취하자는 것이 핵심 논지이다 [1894.7.17(음력)]. 출제를 위해 필요한 앞부분만 편집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에는 '청국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였는데, 이번에 마관(馬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드러나는 빛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1895.4.17).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32 - 부산 두모진 해관 (수세) 사건

32.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조선 정부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 거류지의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하였고, 결국 3개월 만에 수세가 중단되었습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
| 척화비 건립 | 제1차 수신사 파견 | 영국의 거문도 점령 | 함경도 방곡령 선포 | 청일 전쟁 발발 |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정답 > ②

'조선 정부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 거류지의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자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하였고, 결국 3개월 만에 수세가 중단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주어진 사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터, -두모진해관 -'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강화도 조약 체결 시(1876.2) 관철하지 못한 관세 자주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1878년 9월에서 12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두모진 해관 (수세)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78년 9월 28일 두모진 해관 설치).

일본 상인과 일본 관리인이 부산항 두모진의 해관세 철폐를 요구하자 동래 부사가 수세는 조선 상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본 측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고 일축하였으나 일본 상인들이 계속해서 동래부까지 난입하여 세금의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이에 격분한 동래 부민들도 대항). 이후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11월경에는 일본군이 연습을 가장한 함포 발사와 상륙 시위 등 군사력을 동원한 시위 협박을 하였고 결국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한 조선 정부가 12월에 부득이 세금 부과를 정지하고 해관을 닫고 말았다(1878.12.19). '두모진 해관 (수세) 사건'을 일명 '부산 해관 수세 사건'이라고도 한다.*

*두모포: 조선 시대 기장현 구포(九浦)의 하나로 기장현의 대표적인 포구였으며, 해상으로 출입하는 인적·물적 교통의 요충지였다. 두모포진(두모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상 좌수영 소재 부산진 관할 하에 있었으며, 수군만호(水軍萬戶)(종4품)가 전체를 관리하며 수비하였다. 그리고 두모진은 1629년 (인조7년) 기장에서 부산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680년(숙종 6년)에 구왜관이 있던 현(부산 동구) 수정동으로 옮겨졌다(두모진 해관 위치).

연표에서는 제1차 수신사(창산 김기수)를 파견한 1876년 4월과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1885년 4월 사이의 시기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33 - 보빙사

33.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가)이/가 파견되었습니다. 8명의 조선 관리로 구성된 이들은 40여 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뉴욕의 전등 시설과 우체국, 보스턴 박람회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 ①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 ② 별기군(교련병대) 창설을 건의하였다.
- ③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 ④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 ⑤ 전권대신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답 > 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가)이/가 파견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8명의 조선 관리로 구성된 이들은 40여 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뉴욕의 전등 시설과 우체국, 보스턴 박람회 등을 시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사절단'은 보빙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상술하면,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1826~1913)를 파견하였는데(1883.4, 고종 20),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고종은 그에 대한 답례로 1883년(고종 20) 7월에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한 것이다(~1884.5).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사절단은 통신사**이다.

**30번 오답 해설 ④ 참조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4월의 일이다. 강병책으로 신식 군사 연습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탐지한 일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당시 일본 공사 하나 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측 제안을 전달). 그런데 별기군의 급료나 피복 지급 등 모든 대우가 구식 군대보다 월등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왜별기(倭別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 대우는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한 계기가 되었다.

③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한 인물은 도원 김홍집(1842~1896)이다. 김홍집은 1880년(고종 17)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귀국 후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조선책략』을 바쳤다(1880.8). 참고로 수신사는 1876년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주일 조선 공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1876년, 1880년, 1882년 이렇게 총

3차례 파견되었다.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④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영선사이다(1881.9~1882.11). 영선사는 중국의 선진 문물(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견학하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온건 개화파인 운양 김윤식(1835~1922)이 이끌었다. 파견된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는데 기여하였다(1883.3).

<40번 오답 해설>

③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한 부대는 동북 인민 혁명군이다(1936.3).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3년 9월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주도로 조직된 무장 부대로, 다수의 한국인이 가담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⑤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친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1940.9).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1943년 8월, 10여 명의 비전투 대원들(인면전구공작대)을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였다(한·영 군사 상호 협정서 체결). 이들은 인도 캘커타에서 특수 공작전과 대적 선전 방송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1944년 2월부터 그와 관련된 활동을 펼쳤다.

<5번 오답 해설>

③ 복신(?~663)과 도침(?~661)이 의자왕의 다섯째 왕자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 지원과 함께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 것은 태종 무열왕[김춘추] 7년인 660년 10월의 일이다(부여풍이 일본에서 5천여 지원군과 함께 실제로 귀국한 것은 이듬해인 661년 9월)(백제 부흥 운동).

④ 백제의 계백(?~660)이 이끄는 군대[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에 항전한 것은 660년(백제 의자왕 20/신라 태종 무열왕 7) 7월의 일이다.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 지역이다.

⑤ 신라의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재위 23년인 562년의 일이다.

<10번 오답 해설>

⑤ 고려 후기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다(고려 말과 조선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걸쳤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채, 왼손은 왼쪽 다리 뒤로 바닥을 짚고 있는 바 이러한 자세를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세라는 의미로 윤왕좌(輪王坐)라고 한다.

<11번 오답 해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빈민 구제 기관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이후 성종이 재위 5년인 986년에 이를 확대하여 의창을 설치하였다.

<14번 오답 해설>

*역수(曆數): 천행의 운행과 기후의 변화를 따져 철을 따라서 돌아가는 순서[차례]를 살피는 일을 뜻한다.

**측후(測候): 기상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천문의 이동이나 천기의 변화를 관측하는 일을 뜻한다.

***각루(刻漏): 좁은 구멍을 통하여 물이 일정한 속도로 그릇에 떨어지게 하여, 고이는 물의 분량이나 줄어든 물의 분량을 헤아려서 시간을 재는 일을 뜻한다.

⑤ 담헌 홍대용(1731~1783)이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1766, 영조 42).

34 - 중일 전쟁 발발 이후의 일제 식민 통치 정책

3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학술 발표회

우리 연구회에서는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실시된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제: (가)

■ 일시: 2023년 ○○월 ○○일 14:00~17:00

■ 장소: △△대학교 인문대학 소회의실

■ 주최: □□ 연구회

- ① 치안 유지법의 제정 배경
- ② 조선 태형령의 적용 사례 분석
- ③ 제1차 조선 교육령의 제정 목적
- ④ 경성 제국 대학의 설립 의도와 과정
- ⑤ 국가 총동원법의 제정과 조선에서의 시행

정답> ⑤

'학술 발표회'라는 제목 아래 '우리 연구회에서는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실시된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의 일이다(1937.7.7). 그리고 일제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고(1938.4.1), 시행한 것은 같은 해 5월 5일부터이다(일본 본토는 물론 당시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도 적용).

오답 해설>

- ① 일제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②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4월 1일부터 시행)(~1920.3).
 - ③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된 것은 1911년 8월의 일이다(전문 30조). 교육의 기본 방침으로,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민족을 일본의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 교육을 장려하고, 한국인을 우민화시키는데 두었다.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두었다(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함*).
- *제1차 조선 교육령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35번 오답 해설>

⑤ 3·1 운동 초기에는 평화적 만세 운동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또 전국으로 확산될수록 일제의 탄압이 강해짐에 따라 무력 투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특히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 사이). 3·1 운동은 4월 말 이후 점차 수그러들었으나 간헐적인 만세 시위는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35 - 3·1 운동

35.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한국인들이 독립 선언을 하다
- 집회에 참가한 수천 명 체포 -

일본 당국은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헌병을 서울로 집결시켰다. ……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측은 당황했지만 곧 재정비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지만 일본 측 보고서에는 수백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①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③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④ 국외로도 확산되어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 대회가 열렸다.
- ⑤ 평화적 만세 운동에서 무력 투쟁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정답> ③

'한국인들이 독립 선언을 하다(집회에 참가한 수천 명 체포)'는 제목 아래 '일본 당국은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헌병을 서울로 집결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측은 당황했지만 곧 재정비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지만 일본 측 보고서에는 수백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민족 운동은 1919년 3월에 일어난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민족 운동은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30.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중앙 본부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1929.11). 그리고 신간회 중앙 본부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삼아 언론 및 종교 세력, 청년 및 노동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의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조병옥, 이관용, 허헌 등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1929.12.13, 이른바 '민중 대회 사건').

오답 해설>

- ① 3·1 운동은 같은 해인 1919년 5월에 일어난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5·4 운동은 중국 베이징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 운동이자 반제·반봉건 혁명 운동이다.
- ②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1919.4.11).
- ④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 대회가 열린 것은 1919년 4월의 일이다(1919.4.14~16). 독립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한국인의 대대적 모임으로, 일종의 독립운동 후원 대회의 성격을 띠었다. 서재필의 주도로 이승만, 유일한, 민찬호를 비롯해 톰킨스 목사와 딘 신부 등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였다. 대회가 끝날 무렵 의장인 서재필의 지도로 140여 명이 태극기의 행렬을 시도하였다. 이어 미국 독립관에 가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폐막하였다. 참고로 두 번째 한인 자유 대회가 1942년 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민족의 국제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열린 바 있다(1942.2.27~3.1).

36- 신민회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복벽주의를 표방하였다.
- ②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 ③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④ 근대 교육을 위해 배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이 자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자료는 (가)의 활동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통용 장정의 일부입니다. (가)은/는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된 비밀 결사로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회원들의 연락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통용 장정의 일부로 '본회의 목적은/쇠퇴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사업을 유신시켜/유신된 국민이 통일 연합해서/유신이 된 자유 문명국을 성립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단체'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신민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4~1911).

9).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 서관을 운영한 바 있다(1908.5). (대한) 신민회는 4대 강령, 취지서 및 동회 통용 장정* 등을 만들었다.

신민회는 한일 병탄 이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1911.9).

*장정(章程):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을 뜻한다.

오답 해설>

- ① 복벽주의를 표방한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의 주도로 조직된 독립 의군부이다(1912.9~1913.5).
- ② 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된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다(1907.12.6).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 소로 편성).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 ③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항일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렀다.
- ④ 근대 교육을 위해 배재 학당을 설립한 단체는 개신교(감리교)이다.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1885.8).

37- 광무개혁

37. 밑줄 그은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건축으로 보는 한국사】 석조전

고종은 황제로서의 권위와 근대 국가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양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된 석조전 착공을 명하였다. 그러나 황제권 강화를 표방하며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석조전이 완공되기 전에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보 기>

- ㄱ.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ㄷ. 관립 상공 학교를 설립하여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 ㄹ.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건축으로 보는 한국사] 석조전'이라는 제목 아래 '고종은 황제로서의 권위와 근대 국가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양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된 석조전 착공을 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황제권 강화를 표방하며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석조전이 완공되기 전에 강제로 퇴위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개혁'은 대한 제국 수립 이후 추진된 광무개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897~1904).

*덕수궁 석조전: 고종의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열주식(列柱式) 르네상스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이 착공된 것은 광무 4년인 1900년의 일이다[~1910.12(융희 3)].

- ㄱ.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한 것은 1883년(고종 20) 10월의 일이다. 한성순보는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박문국 설치하는 같은 해 8월).
- 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1880년(고종 17) 12월의 일이다.
- ㄷ. 관립 상공 학교를 설립하여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업 교육을 실시한 것은 1899년(고종 36)(광무 3) 5월의 일이다. '상공 학교 관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서울 명동에 위치하였다.
- ㄹ.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한 것은 1901년 10월의 일이다(~1904.4).

이상에서 광무개혁기에 추진된 것은 'ㄷ과 ㄹ'이다.

38- 국민 대표 회의

38. 밑줄 그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의(公意)를 지키는 국민적 대 회합으로서, 최고의 권위에 의해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견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고,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고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며 이에 선언하노라. 삼일 운동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다. ……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 국민적 대단결을 힘써 도모하며, 독립 전도의 대방책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하에서 대업을 기성(期成)하려 한다.

- ①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 ②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공표하였다.
- ③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 ⑤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정답> ①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의(公意)를 지키는 국민적 대회합으로서, 최고의 권위에 의해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견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고,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고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며 이에 선언하노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삼일 운동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다. ……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 국민적 대단결을 힘써 도모하며, 독립 전도의 대방책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하에서 대업을 기성(期成)*하려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3년 2월에 발표된 '국민 대표 회의 선언문'임을 알 수 있다(1923.2.21).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 대표 회의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1923.1.6~6.3). 하지만 회의에서 국내외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곧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져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국민 대표 회의는 동년 6월까지 74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창조파와 개조파가 계속 극렬히 대립하다 결렬되고 말았다.

*기성(期成): 어떤 일을 꼭 이를 것을 기약하거나 목적함을 뜻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선언문의 관련 부분을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1941.12.10).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1941.11.28). 조소앙(1887~1958)이 기초한 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임시 정부 국무 위원회 명의로 공포).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개 장과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향후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④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 청년당이다(1918.8). 1919년 1월에 우사 김규식(1881~1950)을 파리 강화 회의 대표단의 수석 대표로 임명하였으며, 이에 김규식은 같은 해 5월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1919.5.12). 참고로 파견 도중인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로도 위촉되었다(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4월 13일 외무총장 임명장과 파리 강화 회의 전권

39 - 산미 증식 계획

39. 밑줄 그은 '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독립 협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 ② 국채 보상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③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이 계획 실시로 인하여 수리 조합비 부담이 커졌어. 가뜰이나 지세도 부담되는데 개량 종자 구입비로 돈이 더 들어가네. 이래서 살겠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우리 마을 박서방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지. 우리 집은 쌀이 없어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만 먹고 있다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계획'은 일제가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4).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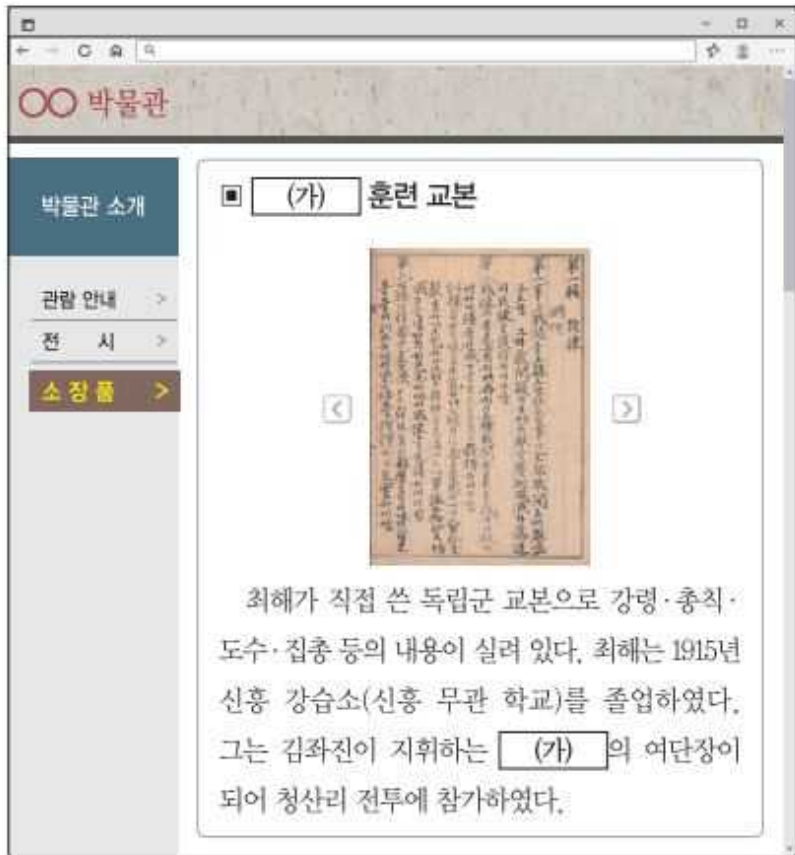
- ① 독립 협회가 결성된 것은 고종 33년이자 건양 원년인 1896년 7월의 일이다(~1899.12).
- ②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시작된 것은 1907년 2월의 일이다(~1908.7).
- ③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 즉 '무단 통치기' 때의 일이다(1910~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공포).

<38번 오답 해설>

- 대사 신임장을 전보로 발송, 김규식의 요청도 있었음).
- ⑤ 백산 지청천(1888~1957)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중국의 임시 수도 충칭에서 조직된 것은 1940년 9월의 일이다(1940.9.17).

40 - 북로 군정서군

40.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였다.
- ②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 ③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 ④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 ⑤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

정답> ④

'(가) 훈련 교본'이라는 제목 아래 '최해*가 직접 쓴 독립군 교본으로 강령·총칙·도수·집총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최해는 1915년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김좌진이 지휘하는 (가)의 여단장이 되어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북로 군정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만주의 대한 군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로 군정서(대한 군정서)로 개편된 것은 1919년 12월의 일이다.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한 부대가 곧 북로 군정서군이다.

*최해(1895~1948): 경북 울진 출생으로 신흥 무관 학교 교관, 북로 군정서 여단장, 고려 혁명군 사령부 부관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8·15 광복 후에 귀국하여 대동청년단 훈련원장으로도 활약하였다. 일명 '해일(海日)'로도 불렸다.

**대한 군정부 직전의 명칭은 대한 군정회였고, 또 그 전의 명칭은 중광단이였다. 중광단은 대중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로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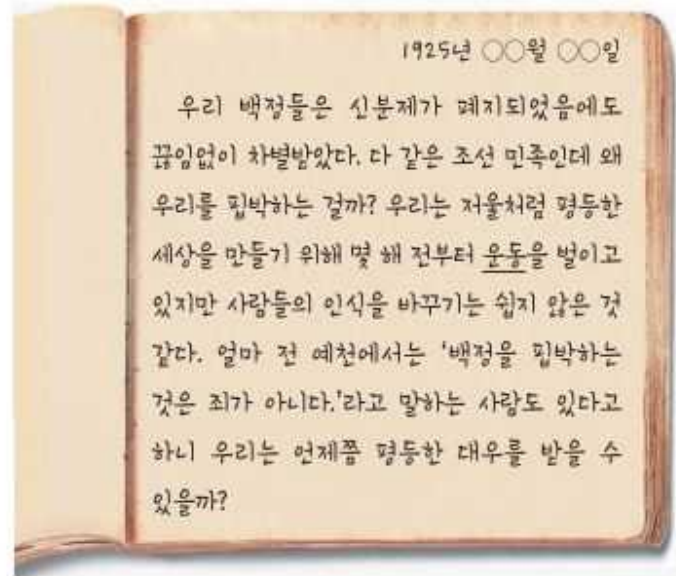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총사령 지청천)이다.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다(1933.7)(대전자령 전투)(한·중 연합 작전). 대전자령은 중국 지린성 왕청현에 위치한다.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우리나라 항일 무장 투쟁사 3대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 ②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둔 부대는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이다. 조선 혁명군은 영릉가에서 중국 (항일)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관동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1932.3)(영릉가 전투)(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 랴오닝성[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18쪽 33번 아래 추가 해설>

41 - 형평 운동

41. 다음 가상 일기의 밑줄 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②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
- ③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순종의 인산일을 기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다.
- ⑤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정답> ①

'1925년'이라는 연도가 보이고, '우리 백정들은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차별받았다. 다 같은 조선 민족인데 왜 우리를 핍박하는 걸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예천에서는 백정을 핍박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우리는 언제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운동'은 백정들의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한 사회 운동으로,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1923.4.24).

오답 해설>

- ②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된 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③ 평양에서 고당 조만식(1883~1950) 등의 주도로 처음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다(1920.8). 물산 장려 운동은 자작회(自作會), 토산 애용 부인회가 서울에서 조직된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각 1922.12/1923.2).
- ④ 순종[재위 1907~1910, 제27대(대한 제국 제2대 황제)]의 인산일[국장]을 기해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한 것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10). 6·10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민족 유일당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27년 2월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2.15)(즉 6·10 만세 운동이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됨).
- ⑤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은 원산 총파업[(노동 운동)이다(1929.1~4)].

42 - 6·25 전쟁

42.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어요.
-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 ③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가 이루어졌어요.
- ④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하였어요.
-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어요.

정답> ④

'이 우표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50년 9월 15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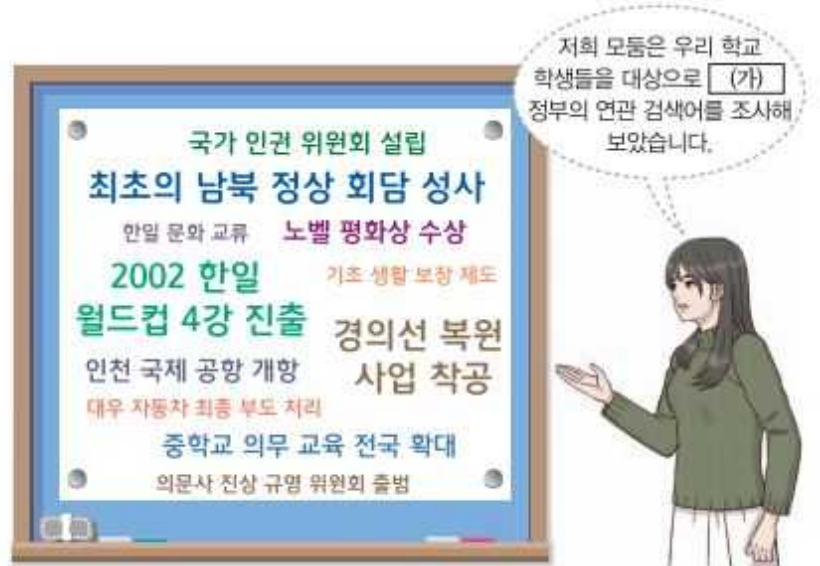
- 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포함한 전국의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석방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다(1953.6.18).
-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이듬해인 1954년 1월에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 절차를 거친 다음 1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1954.11.18).
- ③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의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까지의 일이다.
-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제1차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4). 이승만 정부가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3번 오답 해설>

- ②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 ③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남북 간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43 -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43. (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④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④

'저희 모둠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 정부의 연관 검색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성사', '한일 문화 교류', '노벨 평화상 수상',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인천 국제 공항 개항', '경의선 복원 사업 착공', '대우 자동차 최종 부도 처리', '중학교 의무 교육 전국 확대',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출범'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김대중 정부 시기, 1998.2~2003.2). 제시된 연관 검색어 중 일부를 살펴보면,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2001년 11월의 일이며(2001.11.25),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의 일이다(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 9월). 또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사업이 착공된 것은 2000년 9월의 일이다(2000.9.18).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경의선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개최되었다(2003.6.14). 인천 국제 공항이 개항한 것은 2001년 3월이며(2001.3.29), 대우 자동차가 최종 부도 처리된 것은 2000년 11월의 일이다(2000.11.8). 중학교 의무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이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000년 10월의 일이다(2000.10.17~2004.6.30)(약칭하여 '의문사위'로 부름).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2월에 한층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약칭하여 '진실화해위원회'로 부름)가 조직되었다(2005.12.1).

*1985년 2월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도서 벽지(1985~1986년), 읍면 지역(1992~1994년), 시 지역(2002~2004년) 등으로 중학교 의무 교육이 점차 확대되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 완성되기까지 총 20년이 소요된 셈이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2000.6.13~15). 당시 김대중 대통령(1924~2009)은 2000년 6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과 여러 차례 회담하였고, 그 결과 6월 15일에 남북 공동 선언[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5개 조항으로 구성).

오답 해설>

- 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44 - 4·19 혁명

44.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 ②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③ 전남 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 ④ 민주화를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이것은 1959년 이승만의 84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 탄신 경축식 사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러한 행사는 1949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독재는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며 일어난 (가)(으)로 결국 종말을 고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60년 4월에 발생한 '4·19 혁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를 몰락시키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면 내각: 허정 과도 정부의 주도하에 개정된 제3차 개헌에 따라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로 출범한 1960년 8월 12일에서부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하였다. '장면 정부' 또는 '제2공화국'으로도 부른다.

오답 해설>

①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에 있었던 3·1 민주 구국 선언을 들 수 있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재야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장기 독재 비판).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③ 전남 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다(1980.5.18~27). 전남 도청과 전남대 앞에서 시위대와 계엄군이 대치한 것은 1980년 5월 21일의 일이다. 21일 오전에 시민 대표가 계엄군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었다. 21일 오후 12시경 전남대 앞에서, 또 오후 1시경 전남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 집단 발포가 일어난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남 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것은 5월 27일 새벽이다.

④ 장준하(1918~1975)의 주도로 민주화를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12월부터의 일이다('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1973.12.24.~1974.1.8). 참고로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2월에 치러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2.12)에서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에 의해 같은 해 12월부터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25쪽 46번 아래 추가 해설>

45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5.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②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 ③ 개성 공단에서 의류 생산이 시작되었다.
- ④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정답> ②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이 사진은 현장에 남아 있던 머리띠와 신발들이다. 머리띠에는 안되면 죽음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8월의 일이다(1979.8.9~11).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은 1977년 12월의 일이다(1977.12.22).

오답 해설>

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김영삼 정부 시기, 1993.2~1998.2).

③ 개성 공단에서 의류 생산이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2월의 일이다(노무현 정부 시기, 2003.2~2008.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이르러 개성 공단 착공식이 비로소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성 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북한 근로자가 약 5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2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종이목재 3개, 식품 2개, 비금속 광물이 1개사였다(경공업 기반의 섬유봉제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음).

<25쪽 46번 아래 추가 해설>

46 -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

46.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②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③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 ④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였다.
- ⑤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던 정부 시절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가 출범되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지'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삼청 교육대에 끌려갔잖아'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1월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또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것도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3월의 일이고, 프로 축구가 출범한 것도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3년 5월의 일이다. 프로 축구의 경우 출범 당시에는 2개의 프로팀(할렐루야, 유공)과 3개의 실업팀(국민은행, 포항제철, 대우)이 참가한 세미 프로 리그였다가 이듬해인 1984년에 현대와 럭키금성이 참가하였고, 1987년에 이르러 실업팀[아마추어팀]을 제외한 순수 프로팀인 대우, 포항제철, 유공, 현대, 럭키금성의 5개 프로팀으로 재출범하였다. 우리나라가 순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1983년 1월부터의 일이다(1983.1.1). 사실 우리나라는 1945년 8·15 광복부터 1982년까지 순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이 아예 발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도 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유효한 관광 여권이 발급되었다(연령과 재산에 기준을 둔 제한적 해외여행 자유화). 순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1월부터의 일이다(1989.1.1). 마지막으로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군부대 내에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수립 직전인 1980년 8월 초의 일이다(1980.8.4~1981.1.25). 삼청교육대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두환 정부 시기: 공식적으로는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다섯 번째 공화국(제5공화국)을 가리킨다. 하지만 전두환이 최규하 정부 시기에 실제로 있다가 1980년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

일 주제 국민 회의의 간접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곧 같은 해 10월에 공포된 새 헌법(제8차 개헌)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다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에(같은 해 3월 3일에 취임, 제5공화국 출범) 넓게 보면 1980년 8월부터 전두환 정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 야구 6개 구단: OB베어스,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삼미 슈퍼스타즈. 이후 1986년에 빙그레 이글스가 출범하면서 7개 팀으로 늘어났다.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명은 경찰에서 훈계 방면).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언론 통제 보도 지침).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86년 9월,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발행하던 월간 『말』지를 통해 알려졌다(일명 '보도지침 사건'). 1980년 11월 언론 기관 통폐합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 언론 기본법이 제정되어 언론 통제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이 신설되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도 지침 등 모든 언론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 정무비서실에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한다.

오답 해설>

①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 첫해인 1998년 11월 19일의 일이다. 이때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처음 출항하였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개시되면서 해로 관광은 2004년 1월에 중단되었다.

②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③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의 일이다(1995.6.29)(서울 서초구 서초동 위치). 부실 설계, 부실 공사, 유지 관리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 피해를 낳았다.

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 1월의 일이다(2008.1.1)(시행일).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5년 3월 2일이며, 공포된 것은 같은 해 3월 31일이다.

<44번 오답 해설>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1987.6.10~29). '6·29 민주화 선언'으로 같은 해 10월 여야 합의에 따른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이루어졌다(1987년 10월 29일 공포).

<45번 오답 해설>

④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2월의 일이다(2004.2.16). 협정이 발효된 것은 같은 해 4월이다(2004.4.1).


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47 - 몽양 여운형의 행적

4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한국사 대화형 인공지능



Q 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알려줘.

A 사진 속 인물의 호는 몽양이며, 독립 운동가입니다. 1918년에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Q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줘.

A

- ①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 ② 5·10 총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 ③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④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 ⑤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정답> ⑤

'한국사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알려줘'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답변으로 '사진 속 인물의 호는 몽양이며, 독립운동가입니다. 1918년에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가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줘'라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여운형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1947.10.6). 같은 해 10월 7일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고하 송진우(1887~1945), 인촌 김성수(1891~1955) 등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한 것은 1945년 9월의 일이다(1945.9.16). 한국 민주당은 이들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지식인과 언론인,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설립한 정당이었다. 약칭은 '한민당'이며,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한국 양당 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온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다.
- ② 5·10 총선거가 치러진 것은 1948년 5월의 일이다. 여운형은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던 중인 1947년 7월 19일에 극우파 한 지근 등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 ③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우남 이승만(1875~1965)이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전북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조직하자"는 '정읍 발언'을 하였다(1946.6.3).
- ④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 신채호는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의 요청으로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48 - 삼국 시대의 학습 활동

4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2점]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숫자들이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놀랍게도 구구단이 쓰여 있었습니다. 삼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구단을 공부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의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①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 고래 사냥 모습을 새겼습니다.
- ②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 ③ 청소년들이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 ④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개치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⑤ 정혜공주 묘지석에는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정답> ③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숫자들이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놀랍게도 구구단이 쓰여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삼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구단을 공부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의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소년들이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운 것은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의 일이다. 고구려는 국립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세워 귀족의 자녀를 교육하였으며 지방 교육 기관으로는 경당을 세웠다[각 소수림왕 2년(372)/장수왕 15년(427) 이후].

오답 해설>

- ① (울산광역시)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서 고래 사냥 모습을 새긴 것은 선사 시대의 일이다(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 바위그림[암각화]에는 거북이, 사슴, 새와 같은 동물과 고래, 그물에 걸린 물고기, 우리 안의 동물 등이 새겨져 있다.
- ②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이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만권당은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졌다.
- ④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개치부법을 사용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사개치부법은 주로 개성 상인들이 사용한 독특한 회계처리법이다.
- ⑤ 정혜 공주(737~777)는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이다. 그리고 묘지*명 맨 앞부분**에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참고로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757~792)의 묘지명은 연호와 생몰연도만 다를 뿐 묘지명의 내용이 정혜 공주의 것과 동일하다.
*묘지(墓誌)란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을 뜻한다. 서문(序文)과 명문(銘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릇 오래 전에 있었던 <상서>를 돌이켜보건대, 요 임금은 ... <좌전>을 널리 상세히 보건대, 주나라 천자가 딸을 제나라에 시집보낼 때 ... 어머니로서 갖춘 규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선인들이 쌓은 은혜가 어찌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으리오."

49 - 시대별 도자기

49. (가)~(마)의 설명과 사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태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이고 1,200도 이상에서 구워 만든 자기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 자기 중 하나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 (나) 철분이 약간 함유된 태토에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다. 송 사신 서공은 "푸른 빛깔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 하는데 근래에 들어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였다.
- (다) 회색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입혀 구운 자기다. 고유섭이 회청색을 띠는 사기라는 의미로 '분장회청사기(분청사기)'라 하였다.
- (라)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코발트로 그림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운 자기다. 코발트는 수입산 안료였기에 예종은 관찰사를 통해 백성들이 회회청(코발트)을 구해오도록 독려할 정도였다.
- (마) 표면에 무늬를 파고 백토와 자토를 그 자리에 넣어 초벌구이한 후 유약을 발라 구워낸 자기다. 최순우는 "고려 사람들은 비색의 자기에 영롱한 수를 놓은 방법을 궁리해 냈다."고 하였다.



정답> ③

(가)에 '태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이고 1,200도 이상에서 구워 만든 자기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 자기 중 하나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순)백자 달항아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세기 전반 제작). 참고로 엘리자베스 2세 내외가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것은 1999년 4월의 일이다(1999.4.19~22).

*태토(胎土): 도자기의 몸체를 구성하는 원료인 점토를 가리킨다(일명 '고령토').

**유약(釉藥): 도자기의 몸체에 덧씌우는 약을 가리킨다. 도자기에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면 겉면에 광택이 나게 한다.

(나)에는 '철분이 약간 함유된 태토에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다. 송 사신 서공은 푸른 빛깔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 하는데 근래에 들어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시대 초기부터 만들기 시작한 '순청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선지는 비색 상형 청자 중에서도 정교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자 오리모양 연적'이다(간송미술관 소재). 참고로 송 사신 서공(?~?)이 고려에 온 것은 고려 인종 원년인 1123년의 일이다. 서공은 개경에 1개월간 머무르다가 귀국한 후 『(선화봉사)고려도경』(40권)을 지었다.

(다)에는 '회색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입혀 구운 자기다. 고유섭이 회청색을 띠는 사기라는 의미로 분장회청사기(분청사기)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제작되었다. 하지만 주어진 선지는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 '가지무늬 토기[채도(彩陶)]'이다. 말그대로 토기 표면에 검은 색조의 무늬 처리를 한 토기로 붉은 간토기[홍도(紅陶)]에서 발전한 토기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우현고유섭(1905~1944)은 미술사학자이다.

(라)에는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코발트로 그림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운 자기다. 코발트는 수입산 안료였기에 예종은 관찰사를 통해 백성들이 회회청(코발트)을 구해오도록 독려할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전기인 15세기 중엽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청화 백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선지는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호]이다(15세기 중엽 제작)(세조 10년인 1465년경에 처음 제작한 것으로 기록). 이후 청화 백자는 계속 발전하여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 널리 유행하였다(주류가 됨).

(마)에는 '표면에 무늬를 파고 백토와 자토***를 그 자리에 넣어 초벌구이한 후 유약을 발라 구워낸 자기다. 최순우는 고려 사람들은 비색의 자기에 영롱한 수를 놓은 방법을 궁리해 냈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시대인 12세기 중엽부터 만들기 시작한 상감 청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선지는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다(13세기경 제작). 주어진 자료에서 설명한 대로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재질의 재료를 넣어 제작하였다. 참고로 혜곡 최순우(1916~1984)는 고유섭의 제자로, 미술사학자이자 박물관 행정가(제4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역임)이다.

***백토나 자토(赭土)를 넣고 유약을 바른 뒤 구워내면 백토는 하얗게, 자토는 까맣게 나타난다. 백토와 자토를 통틀어 화장토라고 부른다.

이상에서 설명과 사진을 잘못 연결한 것은 '(다)'이다.

50 - 전태일 분신 항거

50. 다음 사건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하였다.
- ② 부산에서 조선 방직의 총파업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경제 자립을 목표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④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⑤ 평화 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계 피복 노동 조합이 결성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는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을 자꾸 키워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없는 사람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항거한 전태일 열사(1948~1970)가 분신 항거한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전태일 분신 항거'). 당시 전태일은 22세로 평화시장의 피복 공장 재단사였으며 동시에 노동 운동가로 활약하였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전태일 분신 항거 이듬해인 1971년 11월의 일이다(1971.11.27). 전태일 열사의 동료와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1929~2011)의 주도로 평화시장 옥상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이후 새마을 노동 교실, 노조 연대 투쟁, 민주화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 ② 부산에서 조선 방직의 총파업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 1월의 일이다. 일제의 노동력 수탈과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조선 방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벌였는데, 작업 도구의 무료 지급과 벌금제 폐지, 식사 개선 등의 3개 조항만을 수용하는 타협안만 관철되고 파업 10여 일 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노동자 측에서는 400명 이상이 해고되고, 주동자들은 검거되거나 격리되어 강제 귀향 조치되었다.
- ③ 경제 자립을 목표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사실상)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2년 1월부터의 일이다(~1966).

*박정희 정부 시기: 실제로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제5대~제9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에 해당한다.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5·16 군사 정변'으로 이때부터 박정희(1917~1979)가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였다.

④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일이다(구체적으로는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후반).

- 이 상 -